

칼럼 · Column

지역의 독서문화운동과 도서관의 역할



윤 소 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여가연구센터장
soyoung@kcti.re.kr

미국의 경우 성인의 독서율이 매우 저조해 '위기' ('Reading at Risk: A Survey of Literary Reading in America' 보고서)로 인식하면서 2006년부터 'The Big Read' 라는 'One Book, One Community' 형식의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2008년 처음으로 미국 성인의 독서율이 확실하고도 명백하게 증가하였다 ('Reading on the Rise: A New Chapter in American Literacy' 보고서)고 한다. 물론 이러한 독서율의 증가 원인이 반드시 이 운동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 영향력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세계 각국에서 독서율을 높이기 위해 펼친 성공적인 지역운동의 사례가 많다. 영국의 '북스타트 운동' (1992), 일본의 '아침독서 10분운동' (1988), 미국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1988)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을 '책의 해', 1999년을 '전 국민 책 읽기 운동'의 원년으로 삼고 독서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과 '북스타트' 운동은 각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김해, 파주, 청주 등을 중심으로 책읽는도시를 선포하여 지역의 독서진흥운동을 매우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사례도 있다. 대구광역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독서프로그램의 대상을 생애주기별로 접근하여 '북스타트(플러스) 운동', '아침독서 10분운동', '삶쓰기 100자 운동', '1인1책쓰기 운동', '3S 운동' 등 생활 속에 독서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서관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도서관이 책을 보관하고 읽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생활문화의 중심을

목표로 하는 '이진아기념도서관',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의 도서관으로 지어진 '부산느티나무도서관', 아이들은 책을 통한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고 부모들은 가족단위로 구성된 동아리활동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상동구 '책 읽는 엄마, 책읽는 아이도서관'은 도서관의 정형화된 관념을 깨고 지역생활속에 정착한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독서운동이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독서의 진흥을 위한 대표적인 독서운동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독서운동이 공공도서관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는 있으나 프로그램의 운영, 홍보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열린 공간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독서운동의 네트워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독서하는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독서가 일상 생활화가 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독서운동 전개가 요구된다.

향후 지역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도서관의 독서운동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첫째, 독서운동이 한시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주체적 독서활동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독서가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독서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독서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리 형태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고, 주민들의 기부를 통해 건립하거나 주민들이 자원하여 지킴이 역할을 나누어 갖는 방법도 있겠다.

둘째, 독서운동을 추진하는 각 도서관간, 또는 관련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범지역적인 독서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독서운동이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독서문화진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서관련 기관간의 통합적인 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 독서운동 전개의 추진력 확보 및 홍보를 위해서는 지역의 독서관련 행정기관, 인프라, 언론매체 등과의 연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의 운영주체가 누구인가 상관없이, 즉 공공이던 사립이던, 시립이던 작은 도서관이던 상관없이 지역의 독서진흥운동을 가능케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셋째,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통해 독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지역 주민의 각 계층이 독서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성숙한 독서문화진흥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독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독서진흥운동 계획이 수립되어 다각적인 기획력을 가지고 다양한 독서진흥 방안들이 독서운동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문화적도는 전 국민의 독서시간과 질에서 가능될 수 있다. 특히 독서운동은 독서를 권장하면서 사람들이 독서를 주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독서진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 중심에는 도서관이 있다. 따라서 도서관은 다양한 독서운동을 추진하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단계적 방안을 모색하여 도서관 독서운동의 지평을 넓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필)